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신작_후보) 연극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신작_후보) 연극 분야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1차) 2023년 11월 29일(수) 14:00~17:3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2차) 2023년 12월 18일(월) 10:00~18:00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정숙, 김태형, 엄현희, 우연, 정안나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사업은 우수한 신작 발굴을 목적으로, 단계별 심의의 과정을 거쳐 지원단체를 선정합니다. 현재 1차 서류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3차 실연심의에 참여할 올해의신작(후보)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심의 기준은 '작품성(예술적 우수성/차별성),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 실행역량의 우수성, 기대효과(지속성/파급력)'입니다. 심의 기준에서 작품성에 대한 항목이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고자 하는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지원목적에 따라서입니다.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분야에는 총 94건이 지원신청하였으며, 1~2차 심의를 거쳐 실연심의 대상으로 11건을 선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예술의 동시대성,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 등에 대해 논의하며 심의 대상 작품들과 연관된 가치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아울러 서류심의와 인터뷰심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도 동시에 살피며 각 신청단체들이 창작 작업에 임하는 태도에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자기 고백적이거나 사변적으로 여겨지는 작품들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는지'에 대한 창작진의 고민이 드러난 작품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진정성 있게 작업에 임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제작되었을 경우 연극계와 한국 사회에 어떠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논의하였고, 변별력 있는 소재를 보여주며 말하는 방식이 차별성이 있는 작품들 또한 긍정적으로 살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지원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분야에는 역사 속 사건, 인물을 소재로 한 창작극이 다수 지원했습니다. 이는 이전부터 지속되는 현상으로, 올해는 나아가 소설을 각색하거나 고전을 재창작하는 시도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단체 운영 방식에서 기후변화 등 현재의 우리가 고민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고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작품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경향이 있다면, 귀어담론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이야기를 담으며, 더불어 관계와 연대의 가치를 탐색하는 창작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여러 스펙트럼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두에게 응원과 격려를 드리며, 신청해주신 모든 작품들이 무대 위에서 관객과 만나며 빛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신작) 연극 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신작_후보) 창작뮤지컬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신작_후보) 창작뮤지컬 분야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1차) 2023년 11월 28일(화) 14:00~17: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2차) 2023년 12월 15일(금) 10:00~18:00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아람, 박정아, 배새암, 이봉규, 조용신

2024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창작뮤지컬 분야에는 총 37건이 지원 신청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1차 심의에서 필수자료 미제출 등의 행정결격 사유로 탈락한 4건을 제외한 총 33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 예심을 진행하였고 이 중 16건을 2차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차에서는 심의 포기 의향서를 제출한 1건을 제외한 15건을 대상으로 인터뷰 심의를 실시하였고 이 중 11건을 3차 실연심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심의 기준은 작품성(예술적 우수성/차별성) 50%, 예산 및 일정 계획의 타당성 10%, 실행 역량의 우수성 30%, 기대효과(지속성/파급력) 10%로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품성'을 제출 자료의 완성도로 보고 우선적으로 대본과 음악 자료에 집중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실행 역량의 우수성'은 창작물을 실제로 무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단체/개인의 실행 능력이라고 보고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부가된 인터뷰 과정을 더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어진 예산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안정적인 작품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뮤지컬 공연계 종사자들부터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 나아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 의미까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각 작품들은 산술적인 수치로만 환산할 수는 없는 나름의 고유한 특질을 가진 공연예술 창작물들이지만 이러한 심의 기준에 대입하였을 때는 저마다의 장·단점, 완성도와 취약점 및 개선점을 가지고 있는 예비 뮤지컬 창작 콘텐츠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선정작들은 향후 실연심의 지원금을 받고 실제로 배우와 스태프가 참여해서 본 공연에 앞서 독회 공연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이번 심의에서는 소재의 다양성과 동시대성, 설득력 있는 캐릭터 구축, 음악이 이끄는 뮤지컬적 서사의 차별성, 무대 공간적 아이디어 등 현재까지의 완성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공통으로 의견을 모은 작품들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연극과는 구별되는 뮤지컬의 특징점으로 볼 수 있는 텍스트에 생기를 불어넣는 음악의 기능과 역할을 제출 악보와 음원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세심하게 살피려고 하였습니다.

창작산실이 꾸준히 공연예술인과 작품을 지원해오고 있는 만큼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공연예술계에서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창작활동을 하는 스태프들이 참여하는 기회도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선정작들중에도 그러한 발전적인 협업과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만남이 기대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뮤지컬은 종합 예술로서 이제 막 태어난 참신한 창작물을 잘 다루고 키울 수 있는 단체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을 책임진 단체들에서도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실연심의 대상자로 선정된 11개의 작품과 사업단체에게는 축하를 드리며 향후 관객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 작은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에게도 이 과정은 헛된 시간은 아니었기에 앞으로 보다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더 넓은 세상에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뮤지컬 창작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이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신작) 창작뮤지컬 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신작_후보) 무용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신작_후보) 무용 분야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1차) 2023년 11월 23일(목) 14:00~18: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2차) 2023년 12월 14일(목) 10:00~18:00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남진, 김세연, 김신아, 김진원, 박성혜

본 사업은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우수 신작을 발굴이란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최종 공모 결과 심의 대상 62건 신청하였습니다. 심의의 진행은 1차 심의 결과 17건을 선정하였고, 이후 인터뷰 과정을 거친 2차 심의 최종 결과 11건으로 최종 심의하였습니다.

지원 신청의 작업들은 전반적으로 현재 창작무용의 주요 경향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저마다의 독창성과 개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공모 응모 사업 모두 각각이 제시하는 예술적 근거와 취지가 명확한 작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작을 계획하고 있는 무용인 모두 창작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강렬하고 무용예술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심의에서는 번거로운 PT 발표를 생략하고 지원서에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지원서에 내용에 미처 담지 못한 사업 진행 계획의 부연 설명을 들으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확인, 안무자와 기획자 의도에 대한 부연 설명, 예산 내역의 점검과 타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참여자가 자신의 작업에 대한 준비 과정이 철저하였고 몇몇의 작업들은 이전의 리서치 사업, 국내외의 워크숍과 실험의 연장, 다년간의 프로젝트 진행의 최종 결과로 준비하며 작업의 신중성과 완결성을 도모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작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과정으로 엿보이며, 자신의 작업에 대한 미학적 근거와 나름의 예술적 지향점을 가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을 근거로 적극적인 자원 확보의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레퍼토리로 자리 잡기 위해 다각도로의 노력과 구체적 진행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본 사업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작업에 대한 확산과 지속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라 사료되며 일회에 그치는 공연 작업보다 본 사업을 통한 연장과 확산을 계획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2차 심의에서는 사업에서 제시한 사업들의 구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질의와 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해당 극장에 대한 이해도와 적합성, 음악과 무대미술 등의 실질적인 계획과 운영을 통해 작품의 완결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몇몇의 경우에는 본 사업에 대한 취지와 규모, 성격에 대한 이해부족한 부분이 엿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행정적인

서류 미비로 좋은 의도와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웠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인건비 항목에 관한 편성의 현실적 적합성, 관련 보험 적용과 안전에 관한 대응, 예산의 중복성에 대한 확인, 서류 게재에 있어 실수 및 오류의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며 심의하였습니다.

본 심의를 진행하면서 특이점은 본 사업의 참여 무용가들이 가지고 있는 작업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개성이, 방법론에 있어서도 다채로움, 무엇보다도 기존에 진행된 창작 작품들의 경향에서 벗어난 실험성 강한 작업들이 제안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 무용 창작의 최일선에서 감지되는 다양한 경향들을 대표하는 바라 사료되며, 이는 국내 창작 작업과 예술적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의와 예술적인 긍정적 제안, 탁월한 수행력과 예술적 기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11건의 심의를 의결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인하여 낮은 선정률을 보인 것에 유감을 표하며 많은 아쉬움이 남는 사업 내용들이 많았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이후로도 창의성 높고 가치 있는 작업들이 지속되기를 희망하여 본 사업에 지원하신 무용인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업에 관한 관심과 노고가 충분히 엿보이는 심의였으며 많은 고충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지원자 모든 분들의 열정과 성의에 거듭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신작) 무용 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신작_후보) 음악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신작_후보) 음악 분야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1차) 2023년 11월 24일(금) 13:00~17: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2차) 2023년 12월 16일(토) 10:00~16:00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박혜선, 신보현, 이민희, 최지연, 한경진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우수 신작을 발굴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 공연제작 지원사업이다. 지원신청인(단체)은 서류심의, 인터뷰심의 및 2천 5백 만원의 정액이 지원되는 실연 심의를 거치며, 올해의신작에 최종 선정되면 최대 1억까지의 본 공연 작품 제작비와 홍보 및 온라인중계가 지원된다.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음악분야 심의는 예술적 우수성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작품성에 50%의 비중을 뒀으며,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에 10%, 실행역량의 우수성에 30%, 지속성과 파급력 등의 기대효과에 10%을 배정했다.

다수의 지원신청인(단체)이 인공지능(AI), 기후위기 등 현재의 기술이나 사회 이슈에 대한 논의를 작품의 소재나 지향점으로 삼았다. 이 경우 해당 주제가 동시대성을 띄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지원자가 비슷한 경중으로 이를 다루어 유행에 더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창작음악의 난해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돋보였으나 예술철학의 진지함이 뒷전이 되어버린 점도 아쉬웠다.

작곡가가 기획과 제작 등 많은 역할을 겸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간혹 연출, 기획 등이 따로 존재하는 단체에서도 역할 분담이 불분명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 경우 예산의 교부와 집행, 정산은 물론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본 공연의 제작과정 안에서 서류상·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기 쉽다. 심의위원들은 이런 상황이 현재 음악계에 전문기획자가 부족한 데에서 일부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뚜렷한 주제의식과 목표를 담고 있는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예산편성과 장소섭외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콘텐츠로서의 공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문기획자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런 협업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작곡가와 연주자의 음악성이 효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당 프로젝트가 미래로 향하는 지속성 있는 작업인지가 지원서 단계에서부터 명쾌하게 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실연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5건은 음악극의 대중화에 초점을 맞춰 문화 향유의 저변 확대에 앞장선다는 점, 연극적 영감으로 새로운 유형의 창작에 매진한다는 점, 관객에게 새로운 청각적·물리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 구체적인 계획 아래 신작과 재연작을 조화롭게 운용하고자 한다는 점, 순수창작곡의 세계화에 앞장서고자 하는 포부가 돋보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국내에서 시행된 다양한 음악창작 관련 지원사업 중 서류-인터뷰-실연심의 등 본 공연에 이르는 단계와 기간이 유례없이 길며, 지원 액수도 큰 편이다. 이는 달리 말해, 지금까지의 국내 순수 음악계에서는 이 정도의 긴 제작과정을 필요로 하는 공연 현장이 많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부디 국내의 많은 음악 창작자들이 단발성으로 그치던 기존의 공연 관행에서 벗어나 올해의신작이라는 청사진 아래에서 본인이 펼치고자 했던 더 큰 규모의, 내실 있는, 지속성 있는 콘텐츠로서의 공연을 기획하고 성사 시키길 간곡히 바란다.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신작) 음악 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신작_후보) 창작오페라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신작_후보) 창작오페라 분야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1차) 2023년 11월 22일(수) 14:00~16: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2차) 2023년 12월 13일(수) 13:00~16:00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은혜, 김주연, 김철우, 이나리메, 이효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은 동시대를 대표하는 우수한 창작품을 발굴하고 본 공연에 오를 수 있도록 단계별 심의 과정을 통해 무대 연출적인 부분까지 부분적인 실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실연심의 소요 제작비와 많은 예산, 인원, 시간, 기술이 필요한 본 공연 제작비 및 통합 홍보, 온라인 중계 등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심의는 창작진의 대본, 음악과 더불어 제작진의 제작 계획, 연출, 무대 계획 등이 심의 과정에 반영되었으며, 작품성(예술적 우수성/ 차별성 50%), 예산 및 일정 계획의 타당성(10%), 실행 역량의 우수성(30%), 기대효과(지속력, 파급력 10%)를 심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서는 모든 작품의 대본과 악보(총보 일부분), 음원, 제작 계획안을 심사위원이 심도 있게 사전 전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대본과 작품 일부의 음원과 총보, 음악 구성 계획, 기획서 검토를 통해 작품 계획이 상세하며 구체적인지, 실연심사 및 향후 공연에 적합하게 충실히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차 인터뷰 심사에서는 제작 계획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대본과 음악 구성, 무대 구현 계획에 이르기까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본 공연에 이르기까지의 예산 구성 및 제작 계획 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 우수 공연 작품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두 작품이 실연심사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창작 오페라의 전문적 프로덕션의 부재, 창작자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업의 기술, 상호 역할과 세계관에 대한 이해와 충돌에 대한 해결에 대한 모색, 실연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는 타당한 예산 편성 등의 문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 여겨지며 이러한 점들은 심의 과정에서도 고려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기후 위기, 환경문제 등 동시대적 이슈나, SF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참신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기존의 오페라가 다뤄온 소재나 주제의 스펙트럼 확장, 다양한 시대 배경, 신선한 주제와 소재를 통해 대다수의 관객들과 공감이 가능하고, 음악적 감동뿐만 아니라 스토리를 통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동시대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작가들의 고민이 읽히는 부분은 흥미롭고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이디어와 소재 단계에만 머물러 보다 선명한 주제 차원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각 작품의 작곡가 개개인의 개성과 역량이 읽혔고, 현재 오페라를 창작하는 작곡가들이 가지고 있는 관객과의 음악적 소통에 대한 의지, 장면과 내용의 음악적 전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대중성에 대한 고민 등 외적인 요소로 자신의 음악어법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기법적 실천 및 하나의 결을 만들어 가는 작품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제출된 작품들은 현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요소, 장르의 확장, 신개념적 소재, 시·공간을 초월한 드라마적 요소 등의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고, 창작 의도와 구성안이 신선하다는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악과 대본, 연출 의도가 부합되지 않거나 오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극과 음악의 융합이 자연스럽게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작품은 음악의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정통 클래식 음악 요소의 시대적 특징을 자연스럽게 작품에 결합 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양한 무대장치와 연출 기법, 사운드의 생성을 통해 드라마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오랜 시간, 회차를 거듭하며 다듬고 수정해야 하기에 이 지원사업의 결과로 실연되는 공연 이후의 피드백과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한 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순수 초연 창작품, 합리적인 예산안, 한정적 이기보다 보편적인 관객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하였으며 추후에도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기대합니다.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신작) 창작오페라 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신작_후보) 전통예술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신작_후보) 전통예술 분야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1차) 2023년 11월 21일(화) 14:00~18: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2차) 2023년 12월 12일(화) 10:00~18:00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권성택, 박종환, 이영섭, 정성진, 정진세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현시대를 대표할만한 창작 작품을 발굴하여 공연 제작과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신작 전체장르 (창작뮤지컬, 음악, 창작 오페라, 전통예술, 연극, 무용) 지원 건수는 총 94건이고, 이중 전통예술 장르는 25건으로 전체 27%에 해당합니다. 지원자 연령대는 20대 16%, 30대 36%, 40대 40%, 50대 8%로 30대와 40대가 주를 이루었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88%, 비수도권 12%로 지역의 지원 참여가 매우 저조했습니다.

전통예술 분야 심의위원은 연희, 기악, 작 연출, 기획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카테고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의위원들이지만, 공통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전통예술이 핵심 주체가 되어, 그 맥락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매력적인 신작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대 관객과 교감을 할 수 있으면서 실험성과 수월성을 갖춘 신작을 찾아내기 위해 엄격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2건의 인터뷰 심사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2차 인터뷰 심사를 진행하면서 작품의 컨셉, 기성 작품들과의 차별점, 세부적인 창제작계획, 예산 계획, 작품의 타겟, 홍보마케팅 계획, 유통 계획 등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이미 수년간 체계적으로 실험창작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기대하게 되는 작품도 있었고, 실력과 연륜을 갖춘 기성 단체가 새로운 창작진, 혹은 새로운 세대와 협업을 통해 색다른 도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익숙했던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체하여 다시 조합해 보고자 하는 시도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술 콘텐츠로 흔히 연행되는 것들 사이에서 소외되고, 그 의미가 잊혀졌던 것들을 찾아내, 다시 무대화시켜 그 가치를 동시대에 새롭게 알리고자 하는 의미 있는 계획들도 있었습니다.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통 복원의 취지와 잘 어울리는 이야기, 지역적인 정체성과 소재가 맞닿아 있는 이야기, 악기에 대한 사연, 연희자 자신의 고민과 정체성을 극화한 작품들도 눈에 띄었고, 적극적으로 전문 극작가와 연출가를 배치하여, 음악적, 연희적 역량을 '극'에 맞춰 끌어올리는 경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능한 전통이 핵심 주체, 주어가 되는 작품에 점수를 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최종 8개 작품을 실연 심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후에는 4월 마포아트센터에서 관객평가단과 심의위원들의 실연 심사가 이어집니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본공연 제작비와 홍보, 온라인 중계까지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부디, '2024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전통예술)' 일련의 과정을

통해 관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완성도를 갖춘 다채로운 전통예술 신작이 탄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원 참여 건수 자체가 매우 적었던 지역의 전통 예술가와 단체의 도전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산실(올해의신작) 전통예술 분야 심의위원 일동